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26살. 나는 또래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제대를 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 학부 전공인 법학을 더 공부하기로 결심하여 유학길에 올랐다.

외국에서의 유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음에도 현실은 훨씬 더 참담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황량한 이국의 도시환경, 하루에 두 끼 밖에 먹을 수 없는 재정 현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인종 차별 등 출국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 앞에서 나는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유학생활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인 ‘영어’로부터 오는 좌절감은 쉽게 떨쳐내기가 어려웠다.

내 자만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군 생활 도중 틈틈이 영어공부를 했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학부가 아닌 대학원 수업에서 통용되는 영어는 차원이 달랐다.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다. 같은 반 원우들이 웃을 때 나는 어색한 미소만 머금은 채 눈치를 봤고, 열띤 토론이 진행될 때는 내 차례가 올까 마음을 졸이는 하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각종 과제와 시험에서 내 부족한 영어실력은 그 민낯을 유감없이 드러냈고 결과물을 통보 받을 때마다 “내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지?”라는 상실감에 빠지며 ‘포기’라는 말을 떠올리곤 했다. 그러나 여태껏 나를 믿고 기도하신 훌아버지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던가를 돌아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졌고, 영어를 최대한 빠르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교과서와 씨름하고 있던 내게 같은 학교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이던 후배 K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형, 공부 잘 돼가세요?”

“항상 그렇지 뭐. 다른 건 몰라도 영어랑 과제 때문에 너무 힘드네.”

“에이, 요즘 누가 그렇게 과제준비를 그렇게 해요?”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원하는 주제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대충 짜깁기 하세요.”

“그거 표절 아냐? 신입생 O.T. 때 표절하면 바로 과락 준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 학생들 다 그렇게 해요. 겁먹지 말고 조금만 해보세요.”

“싫어. 정당하지 않은 방법 같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 모르세요? 성적만 잘 나오면 끝이에요. 형이 표절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전체를 베껴서 내는 건 아니니깐 너무 걱정 마세요.”

평소 같았으면 웃어넘기고 말았을 얘기였다. 그러나 영어 때문에 연속적인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끼던 내게 그 제안은 내 앞에 드리운 장막을 걷어내는 서광처럼 느껴졌다. 특히 최대한 빨리 학위를 마쳐야만 했던 열악한 재정 상황과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달콤한 유혹은 쉽게 뿌리치기 힘들었다. 과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 “정말 아래로 되나?”라는 생각을 수십 번 되뇌었지만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다른

과제물들이 허름한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나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었다. 결국 해당되는 주제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좋은 문장들을 그대로 짜깁기했고 완성된 결과물을 학과실에 제출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렀고 기말 시험이 다가왔다. 도서관에서 시험공부에 매달려있던 나는 지도교수님이었던 W로부터 잠깐 연구실에서 만나자는 이메일을 받았다. 의아한 마음이 있었지만 별 거 아니겠지 생각했다.

“교수님 부르셨어요?”

“미스터 킴. 요즘 공부는 어때요? 외국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회사모델과 같은 푸근한 인상을 가진 지도교수 W는 교내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그 분은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교육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손꼽는 분이었다.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영어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미스터 킴. 혹시 신입생 O.T. 때 학업윤리(Academic Integrity)란 말을 들어봤나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고, 몇 주 전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며 짜깁기한 과제물이 생각났다. 부분표절인 짜깁기가 대부분 학생이 하고 있는 ‘관행’이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던 후배 K에 대한 순간적인 원망,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행동에 대한 후회, 이제부터 맞닥뜨려야 하는 참담한 결과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휴지조각들처럼 마구 뒤섞이고 있었다.

“네. 들어봤습니다.”

“미스터 킴은 학업윤리 또는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마치자 몇 초간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지도교수 W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채 대화를 이어나갔다.

“현재 우리 대학원 내 대한민국 학생은 미스터 킴 혼자인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미스터 킴이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안 그래도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해하던 내게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말은 기존의 죄책감을 가중시키며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 교육환경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바로 ‘학업윤리’, 바로 ‘청렴’입니다. 미스터 킴은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학문 등을 습득하고 그에 따른 학위를 취득 할 수가 있지만, 정당한 노력과 수단을 통해 얻지 않은 학위, 다시 말해 ‘청렴성’이 배제된 학위는 반쪽 짜리 학위에 불과합니다.”

나는 머리를 숙였고 지도교수 W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꽤나 거창하게 들리지만 청렴(Integrity)이라는 말의 요지는 바로,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에도 정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Integrity means in any circumstances having the courage to do the right thing whether or not anyone is watching). 물론 미스터 킴이 외국학생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학위 과정 중 가져야 할 태도 즉,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인생이라는 큰 학교’가 미스터 킴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행동, 학생으로서 아니 그 전에 민주시민으로서 먼저 지녀야 할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참담해서 머리를 떨군 채 W교수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치듯 연구실을 빠져나오려는 나를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 세우며, 지도교수 W는 이후 내 인생의 방향등이 될 조언을 더했다.

“미스터 킴. 꼭 기억하세요. 성공은 어느 때나 찾아 올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청렴은 영원하다는 사실을!”(Success will come and go, but Integrity is Forever!)

2012년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던 어느 추운 겨울 날, 외국의 한 청년에게 건넨 노교수의 진심어린 충고는 201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퉁이들이 되어

인생이라는 긴 여로 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덧 2년차 직장인이 된 지금, 업무 도중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가치판단이 혼동되어
힘들어하는 후배들과 술잔을 기울일 때나,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지는
나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때 나는 항상 그 노교수의 조언을 떠올리곤 한다.

“기억하세요. 성공은 어느 때나 찾아 올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청렴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Success will come and go, but Integrity is forever!)

청렴 세상